

Hi Seoul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

Hi Seoul Festival 2003



시민 자율의 젊은 축제, 새로운 축제 문화 선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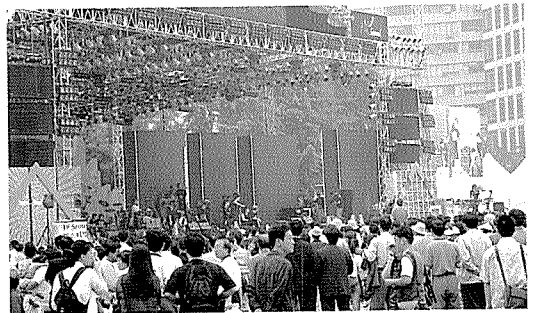
그동안 매년 10월에 서울 시민의 날 행사를 가져온 서울시가 올해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문화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고 연례적인 국제 축제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Hi Seoul Festival(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3' 을 개최했다.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시청 앞 광장, 세종로, 광화문, 종로 일대에 서 펼쳐진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3은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 「Open Your Seoul」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의 꿈과 소망을 열고, 서울의 역사성과 전통성, 다양성과 독창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시민이 함께 만들고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 자율의 젊은 축제로 선보여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고, 시민공모를 통해 많은 시민단체, 개인동호회와 동아리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갖고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시청 앞 광장을 메인 무대로 하여 광화문 앞의 열린 마당, 세종로 공원, 세종문화회관 주변 등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4일 시청 앞 광장 메인 무대에서는 '서울을 열자'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락, 힙합, 테크노 등의 다양한 장르들로 구성된 「젊음 중심 콘서트」, 국내외 유명 뮤지컬 하이라이트, 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으로 꾸며지는 「가족 중심 퍼포먼스」까지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열정의 무대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의 한마당이 열렸다. 특히, 시청 앞, 광화문 일대에서는 세계, 전통, 체험, 이색, 청소년, 먹거리 등 테마별 거리축제가 꾸며져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재치 있고 번뜩이는 아이템과 산뜻한 아이디어로 거리축제를 흥미롭게 수놓은 이색 이벤트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밤에 25일 동대문운동장을 출발, 종로, 광화문을 거쳐 시청 앞 광장에 이르는 시민 퍼레이드를 비롯해 광화문에서는 아시아사자춤, 코스튬플레이, 인라인 스케이트 등 이색행렬이, 종로에서는 종묘제례의 어가행렬과 '조선통신사의 길'을 복원한 장엄한 전통행렬이, 그리고 자치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상징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담은 카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등 600년 서울의 스펙트럼이 한자리에서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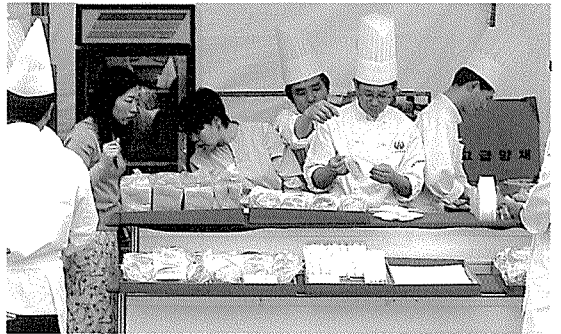
대한제과협회 먹거리 한마당 거리음식축제 참가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기간동안 '먹거리 한마당 거리음식축제'에 참가해 축제를 찾는 일반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더불어 즐거운 먹거리의 장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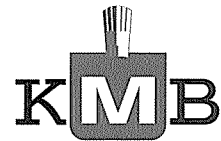
거리음식축제는 먹거리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안으로 마련돼 전통, 70~80년대의 추억 / 퓨전, 젊음 / 가족이라는 테마별로 구성, 진행되었다. 이중 대한제과협회는 가족이라는 테마 부분에 참가, 시청 후정에 마련된 3개의 부스에서 생크림 케이크, 샌드위치, 크루아상, 소보루빵 등을 판매하며, 협회 주최 행사 '2003 국제 빵과자전'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지회장협의회(회장 신동균)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박찬회)가 함께 후원단체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크림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제조, 판매했고, 대흥기업, (주)신라명과, 우주산업, 한국리치식품(유), (주)웰가, 미원햄, 우정공업사, D.K.C, 등 관련업체들도 오븐을 비롯한 기계와 도구, 생크림, 냉동 생지 등 필요한 재료를 후원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판매 전 품목은 할인된 가격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되었고, 행사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졌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3은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올해 처음 개최된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앞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축제 자체를 브랜드화 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취재·강인옥>



Hi Seoul Festival 2003 후원업체



▼ 시민이 함께 만들고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 자율의 젊은 축제 'Hi Seoul Festival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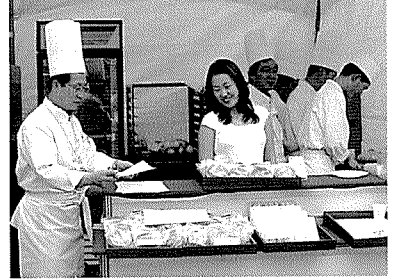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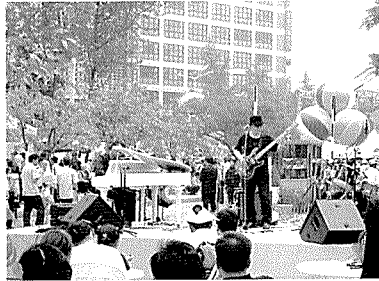
◀ 직접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생크림 케이크를 제조, 판매한 한국제과기능장협회.



▶ 시청 후정에서 열린 거리음식축제 '가족 테마'에 참가한 대한제과협회 부스.

▶ 행사 후원단체로 참석한 서울시지회장협의회 지회장들도 샌드위치를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 먹거리 한마당 가운데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밴드들의 노래와 연주는 축제의 흥을 더욱 북돋웠다.



▲ 무료 시식 때는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맛보려는 시민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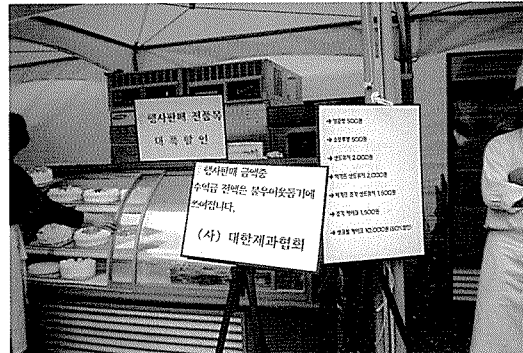
먹거리 한마당 거리음식축제 들여다보기 Hi Seoul Festival 2003



◀ 거리음식축제 행사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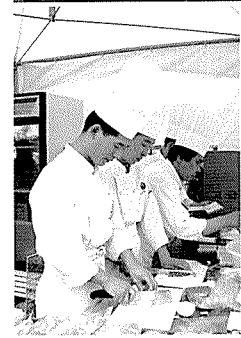
▲ 이번 행사에 참가한 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과 서울시지회장협의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원들.



▲ 행사판매 전 품목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고,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졌다.



▲ 이명박 서울시장도 거리음식축제를 둘러보며 직접 먹거리를 즐기고, 행사에 참가한 단체를 격려하기도 했다.



◀ 행사장에서 직접 신선하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서울시지회장들과 김영모과자점의 김복훈 부장.